

‘미노의 살무사’란 별명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이토 도산은 냉혹한 전술로 유명했다. 1547년 가노구치 전투에서 오다 노부히데(1510~1551)를 물리친 일을 계기로 그는 전국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전투 후, 도산은 딸인 노히메(1533-35~1612)를 노부히데의 아들 오다 노부나가(1534~1582)에게 시집보내고 평화협정을 맺었다.

1556년경 도산은 누가 그의 후계자가 될지에 대한 추측이 주변에서 난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도산의 맏아들인 사이토 요시타쓰(1527~1561)가 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았고, 또한 요시타쓰보다 재능 있는 사위 오다 노부나가에게 후계 자리를 물려줄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자신의 출생과 도산의 의도에 의문을 품은 요시타쓰는 정당한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기로 결심하고 1556년, 나가라가와 전투에서 아버지 도산을 습격했다.

요시타쓰는 사이토 가문의 병사 대부분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여 62세였던 아버지 도산을 나가라가와 전투에서 패배시키고 살해했다. 노부나가는 장인을 돕기 위해 지원군을 파견했지만, 제시간에 닿지 못했다. 사이토 도산의 머리는 전투 중에 빼앗겼다가, 후에 기후성 북쪽에 있는 소후쿠지 절 근처의 도산즈카(도산의 무덤)에 매장되었다.